

# 조선후기 科擧談의 轉載와 變改\*

— 『東稗洛誦』 所在 科擧談을 중심으로 —

김 경\*

## 차 례

1. 들어가며
2. 『東稗洛誦』 과거담 양상
3. 『東稗洛誦』 과거담의 轉載와 變改
4. 나가며

### | 국문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東稗洛誦』에 수록된 科擧談을 통해 科擧의 실상과 그 문화적 배경, 아울러 과거담의 轉載와 變改를 통해 科擧와 관련된 일화의 유통과 향유를 살피는 데에 있다.

『동패락송』에 담긴 과거담은 11개로 科擧가 지닌 파급력을 각 일화에 세밀하게 배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패락송』의 과거담에는 허구성 강한 일화가 다수이면서도 현실 지향적이다. 또한 『동패락송』의 과거담에서 10개가 후대로 전승되는데, 이를 수용한 후대 아담집에서 전재와 변개는 科擧와 관련된 당대 현실이나 욕망을 촘촘히 배열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科擧의 측면에서 보자면, 조선후기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서 주요 갈등의 요인이 科擧였다는 점을 통해 여전히 유효한 科擧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과거담에서 조선후기 科擧에 대한 불만은 科擧가 온전했던 시대를 소환하고 동경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핵심어 : 科擧, 科擧談, 東稗洛誦, 轉載, 變改, 應試文化

##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野談集인 『東稗洛誦』에 수록된 科擧談을 통해 科擧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22S1A5C2A02093644), 2024년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실상과 그 문화적 배경, 아울러 특정 과거담의 轉載와 變改를 통해 科擧와 관련된 일화의 유통과 향유를 살피고자 한다.

야담은 민간에서 구연되던 이야기들이 식자층에 의해 기록화되면서 사실과 허구가 교직된 복합적 요소를 지닌 장르로, 현실을 반영한 사실성과 神異한 요소가 가미된 허구성이 병존한다. 따라서 야담에 수록된 일화는 실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가공된 것일 수도 있으며, 허구를 바탕으로 꾸며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허구적 요소라 하여 간과하기보다는 비판이나 풍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당대 문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sup>1)</sup> 무엇보다 야담에는 저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당대 요구나 사회적 분위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이분하자면 致富와 出世로 요약되는데, 출세와 관련된 일화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거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담은 당대 科擧의 실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및 응시문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야담은 17세기 柳夢寅(1559~1623)의 『於野談』을 시작으로 20세기까지 꾸준히 편찬되었다. 특히 18세기는 『天倪錄』, 『梅翁閑錄』, 『鶴山閑言』 등과 같은 야담집 쏟아지면서 야담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후 19세기에는 비슷한 일화가 야담집마다 확인되는 가운데 轉載와 變改의 과정이 두드러진다. 특히 편찬자의 가치관이 투영되거나 가감을 통해 재가공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정 일화의 유통과 향유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盧命欽(1713~1775)의 『東稗洛誦』은 1774~1775년 사이 저술된 야담집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문헌학적 접근과 일화의 성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문헌학적 접근은 현전하는 『동패락송』의 이본을 비교하여 이들 간의 관계 및 전개 양상을 통해 원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3)</sup> 또한 『동패락송』의 성격과 개별 작품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90대 초반

1) 이강욱,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22쪽.

2) 轉載는 이미 발표된 문장을 다른 지면에 옮겨 실는 것으로, 야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소의 이야기가 동시대 작품집에 보이는 경우이다. 이채경, 「18세기 야담의 유사 화소 교착 및 변개 양상」, 『대동한문화』 40, 대동한문화회, 2014, 405쪽.

3) 현전하는 『동패락송』은 연세대본(78편), 이화여대본(37편), 임형택본(38편), 천리대본(114편), 동양문고본(57편)으로 5종이다. 이본들 간의 관계는 연대본과 천리대본, 이대본과 임형택본과 동양문고본으로 구분된다. 정명기, 「『동패락송』 연구」,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서, 1996.

터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동패락송』의 성립과 전승, 성격과 특성 등이 究明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sup>4)</sup> 그 결과 『동패락송』에는 여타 야담집과 비슷한 내용의 일화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같은 원인은 洪樂受(1755~1819)의 서문과 洪稷榮(1782~1842)의 발문에서 확인되듯이 『동패락송』이 당대 세상에 流傳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점에서 기인한다.<sup>5)</sup> 선행연구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동패락송』을 중심으로 이전 야담과 이후 야담의 수용과 전승, 전재와 변개에 주목하였다.<sup>6)</sup>

이처럼 『동패락송』은 전대 야담집의 수용과 후대 야담집으로의 전승이 주요 특징인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서사 기술 측면에만 주목한 경향이 없지 않다. 『동패락송』에는 신분 갈등, 전란, 운명, 致富와 관련된 일화에서 科擧가 빠짐 없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科擧를 통한 접근이 여전히 미비하다. 더욱이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 대부분은 『溪西雜錄』·『靑邱野談』·『記問叢話』·『溪西野談』·『東野彙集』으로 전승되는 물론 그 이전 시기인 『어우야담』·『천예록』과 비슷한 일화가 다수 확인된다. 그러므로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은 科擧와 관련된 일화의 생산은 물론, 조선후기 야담집에서 전재와 변개의 이유와 특징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 양상을 확인하고, 각 과거담

- 
- 4) 『동패락송』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출현·김준형의 논의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출현·김준형, 『『東稗洛誦』의 전대 이야기 수용 양상-전대 문헌 소재 「朴震憲」과 「楊士彦」 모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7, 동양한문학회, 2020, 288~289쪽 참조.
- 5) 洪樂受, 〈東稗洛誦序〉, 『杜溪集』(연세대 소장본, “乃於翰墨之暇, 搜羅世俗流傳之說, 擧取百餘種, 裒萃爲一書. …… 名之東稗洛誦.” 洪稷榮, 〈東稗洛誦跋〉, 『小州集』(연세대 소장본, “近日, 得拙翁盧公所編東稗洛誦者, 伏而讀之. …… 兒時所聞者, 幾居什之七八, 而鄙俚化爲新奇, 虛無變以典實.” 홍낙수와 홍직영은 洪鳳漢의 동생인 洪龍漢의 아들과 손자이다. 『동패락송』의 저자인 노명흠은 홍봉한 일가에서 30년 동안 塾師로 지냈다. 임형택, 『『東稗洛誦』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23, 한국한문학회, 1999, 322~324쪽 참조.
- 6) 이강옥, 「야담집에서의 이경류 이야기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61, 한국문화회, 2012; 임완혁, 「『계서야담』의 서술방식에 대한 일고찰-『동패락송』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장 기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임완혁, 「『동야휘집(東野彙輯)』과 『동패락송(東稗洛誦)』의 관련 양상 (그일(其一))-수용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0, 한국한문학회, 1997; 이재경, 앞의 논문; 권기성, 「『계서잡록』 4권 소재 야담의 서사방식-『동패락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0, 한국한문학회, 2020; 정출현·김준형, 앞의 논문; 김준형, 「〈일타홍(一朶紅) 이야기〉의 형성과 변진, 그리고 소멸」, 『한국한문학연구』 69, 한국한문학회, 2022.

의 수용과 전승을 통해 科擧와 관련된 시선과 공유된 가치가 무엇이며, 전승 과정에서 전재와 변개에 주목하여 재가공된 일화를 통해 개별화된 시선과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과거담 전재와 변개 과정의 一段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東稗洛誦』 과거담 양상

현전하는 5종의 『동패락송』 이본 중에서 천리대본은 수록된 내용으로 볼 때 『溪西雜錄』(일사문고본), 『記聞叢話』(연세대본), 『靑邱野談』(버클리대본), 『溪西野談』(규장각본), 『東野彙輯』(대판부립도서관본), 『東稗』(정명기본), 『罷睡錄』(엔칭본)과 일치하는 일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천리대본은 여러 야담집의 일화를 선별해서 필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천리대본은 『동패락송』의 後寫本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되어 있다.<sup>7)</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저본으로 삼은 연세대본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의 양상뿐만 아니라 과거담의 전재와 변개까지 살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여타 야담집과의 동일한 일화가 다수인 천리대본도 병론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담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의 주요 정보와 내용을 소개하면 연세대본에는 6개이고, 천리대본에는 11개가 수록되어 있다. 천리대본이 연세본 소재 일화를 모두 수렴하고 있으므로, 천리대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에서는 科擧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이나 제도 비판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출세의 욕망이나 초월적 도움과 같은 허구성이나 우세한 일화에서부터, 응시자의 준비 및 대우에 이르기까지 응시문화와 관련된 일화가 주를 이룬다.

7) 천리대본은 『계서잡록』 2권과 유사 일화가 확인되고, 이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서잡록』 2권의 필사 연대가 1879년이므로, 천리대본은 그 이후로 추정된다. 정명기, 앞의 책, 328~329쪽; 김동욱, 「동패락송에 대하여」,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13~14쪽 참조.

[표 1] 동패락송(천리대본) 과거담 양상

연번	일화	등장인물	주요 내용	출전
1	3	朴震憲, 李枝茂, 尹得說	박진현의 表文에 대한 안목과 합격 예언	연3
2	11	申叔舟	庭試 응시 때 청의동자의 도움을 받은 신숙주	연16
3	18	南宮斗	진사에 입격한 뒤 신선술을 배운 남궁두	연24
4	22	許珙	許氏 삼 형제의 각자도생	연29
5	26	洪濟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한 전라도 유생	연37
6	28	沈喜壽, 一朵紅	일타홍의 내조로 급제한 심희수	연39
7	30	成宗	성종의 노력에도 운명에 의해 급제하지 못한 선비	계1
8	31	成宗, 李石	성종이 꿈에서 본 이름인 이석이 죽은 아버지 친구를 만나 예전에 아버지 작성한 초고를 답안으로 제출하여 급제	계3
9	58	鄭太和	정태화와 두 친구 포부를 통한 양반층의 현실 대응	계32
10	71	權大運	어느 진사가 권대운에게 남인의 실각을 예언	계54
11	106	李浚慶	40세가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이준경의 처우	無

등장인물을 보면 1개만이 무명씨이고 나머지는 실존 인물들이다. 조선 초기인 申叔舟(1417~1475)부터 숙종대 영의정을 지낸 權大運(1612~1699)까지 확인된다. 이들이 등장하는 일화에서는 科文에 대한 안목뿐만 아니라, 科擧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담이 사건의 배경으로써 등장하는 일화는 4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화에서 科擧는 특정 인물 능력을 부각하는 데에 활용된다.

이들을 사실과 허구 측면에서 구분하자면, 당대 현실이 반영되어 사실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일화는 22, 26, 28, 30, 58, 106화이고, 神異한 요소인 꿈이나 예언과 같이 허구성이 두드러지는 일화는 3, 11, 18, 31, 71화이다. 이를 각 일화의 주제와 연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8) 『동패락송』의 소재 모든 과거담이 사실과 허구로 이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경향성으로 구

【표 2】 동패락송(천리대본) 과거담 주제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해당작품(성격)
應試文化	응시자 실태	현실대응과 과거	22(사실성)
		지방 응시자의 상경	26(사실성)
		미급제자의 대우	106(사실성)
	運과 命	초월적 도움으로 급제	11(허구성)
		타인의 도움으로 급제	28(사실성)
		급제할 운명	31(허구성)
		낙방할 운명	30(허구성)
능력과 안목	안목	科文에 대한 안목	3(허구성), 30(사실성)
	능력	사건의 예언	3(허구성), 71(허구성)
		타고난 능력	18(허구성)
制度批判	인재 선발	인재 선발의 공정성 훼손	58(사실성)

먼저 허구성의 경우 여타 야담집 소재 과거담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11화에서는 귀신의 도움으로, 31화에서는 꿈, 3화와 71화에서는 예언을 통해 합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적 요소가 강하며 등장인물은 초월적 도움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게 된다.

다음 사실성의 경우 조선후기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일화들이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에는 양반에게도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며 일부에서는 科擧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기도 하였다.<sup>9)</sup> 22화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고, 반면에 28화에서는 조선후기에도 양반층의 출세는 여전히 科擧가 유효한 통로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30화는 科文에 대한 안목, 그리고 시험관의 잘못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합격하지 못한 선비에 대한 일화로 科擧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한 편에 담아내고 있다. 58화에서는 科擧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은거하고자 하는 자, 조선에서

분하였다. 주제 또한 표 2의 분류방식에 의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3화, 30화처럼 한 일화에는 2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9) 손찬식, 「漢文短篇에 나타난 沒落 兩班의 刑象」,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108쪽.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어 도적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선비들의 다양한 처세관을 확인할 수 있다. 106화에서는 40세가 넘도록 급제하지 못한 선비와 그를 대우하는 집안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급제하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정리하자면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은 당대 현실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일화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과거제도나 응시 과정에서 과거 시험장의 실상과 같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선후기 사회구조에서 출세에 대한 명분이나 현실 대응을 통해 다양한 처세에 대한 의식과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아울러 科擧를 둘러싼 응시자의 준비 및 이들에 대한 대우 등과 같은 응시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의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허구성을 강한 일화가 다수이면서도 『동패락송』의 과거담은 현실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천리대본 『동패락송』의 전체 일화의 성격은 신선과 같은 허구성 짙은 일화에서부터 신분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일화에까지 다양하다. 이는 여러 야담집을 選取한 천리대본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3, 11, 18, 22, 26, 28화는 연세대본에서 확인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면모는 저자인 노명흡이 편찬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35세부터 6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洪鳳漢 가문의 숙사로 지내면서 그 집안에 왕래하던 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흥봉한 가문은 각종 소설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이야기가 『동패락송』에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sup>10)</sup> 또한 30, 31, 58, 71화는 『계서잡록』에서 확인되는 일화로 노명흡이 아닌 李羲平(1772~1839)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계서잡록』은 『동패락송』을 기초하기 때문에 전술한 전체 일화의 성격과 궤를 같이한다.<sup>11)</sup> 이처럼 천리대본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의 내용적 특징은 전대 야담집을 수용한 결과로 인해 다양한 편찬 의식이 교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究明하기 위해서 특정 일화의 존재와 변개를 통해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10) 『천예록』의 저자인 任璧의 사위가 洪鳳漢이므로 다양한 문헌과 소설류와 성격이 일화가 반영된 것이다.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야담문화연구의 현단계』 1, 보고서, 2001, 304~305쪽 참조.

11) 정출현·김준형, 앞의 논문, 288쪽.

### 3. 『東稗洛誦』 과거담의 轉載와 變改

전술하다시피 조선후기에 저술된 다수의 야담집에는 같거나 비슷한 이야기가 중복적으로 확인된다.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도 여러 야담집에서 전재와 변개가 이루어지며, 『동패락송』 이본 간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이미 기록된 일화가 동시대에 다른 지면으로 옮겨 실은 전재와 편찬 과정에서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축약하거나 다르게 바꾸는 변개를 통해 주요 과거담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동패락송』에 담긴 11개 과거담 중에서 10개가 수용과 전승, 전재와 변개의 양상이 확인된다. 이 같은 『동패락송』 과거담의 제양상은 전술하였다시피 여러 야담집을 수용한 천리대본의 특징, 『동패락송』의 저술한 노명흠의 저술 태도, 『동패락송』 일부 작품을 수록한 『계서잡록』, 전대 야담의 재편집한 『기문총화』·『청구야담』·『동야회집』의 叢話 성격과 맞물려 있다.

먼저 수용의 경우는 모두 『어우야담』과 관련된 것인데, 특이점은 이들 일화에서 科擧는 모두 서사 전개에서 배경으로 등장한다. 11화는 申叔舟(1417~1475)가 청의동자의 도움으로 일을 해결해 가는 내용이고, 18화는 南宮斗(1526~1620)가 진사에 입격한 뒤 성균관에서 신선술을 익히는 일화이다. 이 일화들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처음 등장한다.<sup>12)</sup> 또한 28화는 沈喜壽(1548~1622)와 一朵紅의 이야기로 『어우야담』에 처음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야담집에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sup>13)</sup> 또한 3화는 金榦(1646~1732)의 문집 『厚齋集』의 〈雜著·隨錄〉에 수록된 작품을 전사한 것이다. 한편 이 일화는 『청구야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두 개의 작품으로 구별되어 있다.<sup>14)</sup>

22화, 30화, 31화, 58화, 71화는 현재까지 『동패락송』과 『계서잡록』에서 처

12) 신수주 일화는 『어우집』에서도 확인된다. 柳夢寅, 〈送回答副使朴典翰【梓】入日本序〉, 『於于集·後集』 권3, “昔申叔舟之使其國也, 爲當時本柄者所銜勒, 俾驅之死地, 叔舟挾青衣神童.”

13) 이신성, 「〈一朵紅 이야기〉의 展開樣相과 그 意味」,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서, 2001, 319~359쪽; 남궁윤, 「『청구야담』의 轉載과정과 編制양상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113쪽 참조.

14) 정출현·김준형, 앞의 논문, 293~295쪽 참조. 『厚齋集』과 『靑邱野談』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임완혁(「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회, 2000)에 의해 논의되었다.



[표 3] 동패락송(천리대본) 과거담의 수용과 전승 제양상

일화	서명(저본)	비고
3	靑邱野談(버클리대본) 23	변개
	東野彙輯(대판부립도서관본) 5-2	변개
11	於于野談(만종재본) 10	수용
	記聞叢話(연세대본) 75	변개
18	於于野談(만종재본) 97	수용
22	溪西雜錄(일사문고본) 4-12	전재
	溪西野談(규장각본) 86	
	記聞叢話(연세대본) 299	
	靑邱野談(버클리대본) 186	
	東野彙輯(대판부립도서관본) 117	변개
28	天倪錄(천리대본) 18	수용
	溪西雜錄(일사문고본) 4-3	변개
	溪西野談(규장각본) 77	변개
	靑邱野談(버클리대본) 184	변개
	東野彙輯(대판부립도서관본) 12-10	변개
	東稗(정명기본) 追錄 1	변개
	『揚隱闡微』(단국대본) 6	변개
30	罷睡錄(엔칭본) 2	변개
	溪西雜錄(일사문고본) 2-1	변개
	溪西野談(규장각본) 99	변개
	靑邱野談(버클리대본) 211	전재
	記聞叢話(연세대본) 184	
東野彙輯(대판부립도서관본) 1-2	변개(30화·31화 합본)	
31	罷睡錄(엔칭본) 3	변개
	溪西野談(규장각본) 101	변개
	記聞叢話(연세대본) 186	변개
	東野彙輯(대판부립도서관본) 1-2	변개(30화·31화 합본)
58	罷睡錄(엔칭본) 15	변개
	溪西雜錄(일사문고본) 2-32	변개
	溪西野談(규장각본) 116	변개
	記聞叢話(연세대본) 201	변개
71	溪西野談(규장각본) 54	변개
	罷睡錄(엔칭본) 24	변개
106	靑邱野談(버클리대본) 193	변개
	東稗(정명기본) 32	변개

음 확인되는 일화이자, 후대 『동야휘집』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변개 과정이 확인되는 일화들이다. 이 중에서 22화를 제외한 나머지 일화들은 『계서잡록』을 변개한 것이다. 31화는 성종과 관련된 일화로, 후대 야담집에서는 30화와 합본되거나 분리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서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개가 이루어진다. 58화의 주된 변개는 정태화의 포부가 『동패락송』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파수록』과 같은 야담집에서는 추가되어 있다. 106화는 李浚慶(1499~1572)의 일화로, 『청구야담』에서만 李秉鼎(1742~1804)으로 변개되어 있다. 변개 양상이 확인된 일화들은 71화만 제외하고 모두 본격적인 과거담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화는 22화와 30화이다. 이들은 모두 전재와 변개 측면에서 가장 도드라진다. 또한 22화는 『동패락송』이 원형이라 할 수 있고, 30화는 『계서잡록』을 전사한 일화로 천리대본 『동패락송』에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22화 30화는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의 창작, 그리고 『동패락송』의 이본관계 및 전재와 변개 양상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화들이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전재와 변개의 특징과 그 이유를 科擧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 3.1 許氏의 일화 : 致富를 통한 出世慾의 투영

『동패락송』 22화는 驪州의 양반인 許氏 삼 형제가 부모의 죽음 이후 가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각자의 삶을 모색하는 이야기이다.<sup>15)</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부모의 죽음 이후 삼 형제의 각자도생  
(첫째와 셋째는 과거 공부, 둘째인 許珙[許弘]은 致富하여 이들을 후원하기로 함.)
- ② 許珙의 致富 과정.
- ③ 첫째와 셋째가 소과에 입격하자 應榜의 비용을 대고 대과에 응시하도록 후원함.
- ④ 許珙은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지만, 아내가 죽어 관직에 부임하지 않음.

15) 이 일화는 『이조한문단편』(이우성·임형택 역편, 일조각, 1999)에 ‘廣作’이라는 이름으로 일찍부터 학계에 주목의 대상이었다. 주로 致富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형상성에 주목하였다.

	동패락송(연세대본)	동패락송(천리대본)	계서집록·기문총화·계서야담·칭구야담	동야후집
<p>①</p>	<p>·驪州舊有許姓兩班, 仁善而貧甚. (중략)</p> <p>·其中子珙, 語于兄弟曰, “會前所不飢死者, 徒以父母得人之心也. 今則三喪已闕, 父母餘澤, 無可更藉, 以此倒懸之勢, 必至合沒之, 當各思謀生道爲, 可也.” (중략)</p> <p>·是日, 兄弟內外, 相與灑涕而分散.</p>	<p>·驪州有一許姓兩班, 仁善而貧甚. (중략)</p> <p>·其他子珙語于兄弟曰, “會所不能死者, 以父母得人心也. 今餘澤無可更藉, 勢之倒懸, 必至合沒之境, 當各謀生道爲可.” (중략)</p> <p>·於是, 相與灑涕而散.</p>	<p>·驪州地, 古有許姓儒生, 家甚貧, 不能自存, 而性甚仁厚. (중략)</p> <p>·數年之間, 偶以瘟疫, 夫妻俱沒.</p> <p>·其仲子名弘者, 言于其兄及弟曰, “會前吾輩之幸免餓死者, 只緣先親之得人心, 而助資之致也, 今焉三霜已過, 先親之恩澤已竭, 無他控訴, 以今倒懸之勢, 弟兄闔沒之外, 無他策矣, 不可不各自圖生. 自今日, 兄弟各從素業可也.” (중략)</p> <p>·自伊日兄弟酒淚相別, 二嫂送于其家, 兄與弟, 送于山寺.</p>	<p>·許姓士人某, 驪州人也. 家甚貧, 而勤攻學業, 性行淳懇, 鄉黨稱之. (중략)</p> <p>·夫妻偶嬰疫俱歿.</p> <p>·其仲子名弘, 謂兄及弟曰, “吾儕之幸免餓, 都緣先爺之信義, 人賴他相資. 今焉三霜奄過, 恩澤已竭矣, 顧安所得糊口乎? 將携手同歸墳壑而已, 到今事勢, 不得不各自圖生.” (중략)</p> <p>·於是, 兄弟依弘言, 各散.</p>
<p>②</p>	<p>·(진략) 年誓十年喫粥, 女婢則餽以全一器, 許之夫妻, 分半於一碗粥. 許謂其婢曰, “汝以耐飢爲難, 則任汝他去矣.” 其婢泣曰, “上典誓死治生, 婢何可怕飢舍去乎? (후략)</p>	<p>·(진략) 誓十年喫粥, 女婢則餽以全一器. 夫妻分半於一碗粥, 謂其婢曰, “而耐飢爲難, 任汝他去矣.” 婢泣而助役治生. (후략)</p>	<p>·(진략) 每日作粥, 渠與其妻, 每日以一分半而喫之, 婢則給一器曰, “汝若難忍飢餓, 自可出去, 吾不汝責.” 其婢泣曰, “上典則喫半器, 小的喫一器, 焉敢曰飢乎? 雖餓死, 無意出去云.” (후략)</p>	<p>·(진략) 每作粥, 與其妻, 以一器分半喫之, 婢則給一器, 曰, “若不堪饑寒, 可去矣, 吾不若責.” 婢泣曰, “主喫半器, 婢與一器, 德已厚矣, 敢言飢乎? 雖死何之?” (후략)</p>

	동패락송(연세대본)	동패락송(천리대본)	계시잡록·기문총화·계시아담·청구아담	동야취집
③	<p>·(진략)其翌年, 兄弟小科聯壁, 仲許準備唱榜之費, 親自上京, 同歸致門, 設慶宴. 翌日, 招才人語之曰, “吾兄弟之無家乞食山寺之狀, 汝或聞之矣. 今日, 當復入山做工, 汝輩淹留無益, 須今日罷去也.” 各給百金而送之, 復勸兄弟上山, 作大科工.</p>	<p>·(진략)其翌年, 兄弟小科聯壁, 中許準備唱之費, 親自上京, 同歸到門, 設慶宴. 翌日, 招才人語之曰, “吾兄弟之無家乞食山寺, 汝或聞之矣. 今日, 當復入山做工, 汝輩淹留無益, 須今日罷去也.” 各給百金, 復勸兄弟上山, 作大科工.</p>	<p>·(진략)翌年春, 兄與弟聯壁而小成矣, 弘多持錢帛, 而上京, 以備應榜之需, 率倡而到門, 伊日招倡優而論之曰, “吾家兄弟, 今雖小成, 且有大科, 又當上山而工課, 汝等留之無益, 可以還歸汝家.” 各給錢兩而送之, 對其兄及弟而言曰, “十年之限, 姑未及. 須即上寺, 待限滿下來可也.” 仍即日送之上山.</p>	<p>·(진략)翌年, 兄與弟聯壁連榜, 弘多資錢帛, 隨詣京師, 應榜諸具, 悉自措備, 率倡優鼓樂, 到家歡譁. 幾日, 謂其兄弟曰, “雖已小成, 尙有大科, 可復上山肄業, 揣吾十年之限, 差過卅六個月, 當圖團聚.” 計三年薪米之費, 即資昆季以送之. 弘乃因富添殖, 百貨繼至, 千倉萬箱, 擬於素封.</p>
④	<p>·及滿十年, 則儼然成萬石翁矣. (중략) 一日, 兄弟同宿, 仲許忽夜起痛哭, 其兄慰之曰, “汝之所享, 無異公侯, 有何不足而作此悲哀耶?” 仲許對曰, “吾父母之當初所期吾兄弟者, 在科業而不在家產. 惟兄與弟, 則雖是小成, 亦足成吾親之遺意, 而吾則無狀爲口腹計, 放置文字, 已至十餘年, 仰負親意,</p>	<p>·及滿十年, 則儼成萬石富矣. (중략) 一日, 兄弟同宿, 中許忽夜起慟哭, 其兄慰之曰, “汝之所享, 無異公侯, 有何不足而作此悲耶?” 對曰, “吾父母之所期吾兄弟者, 在科而不在產, 兄與弟, 雖小成, 亦足成親之遺意, 而吾則無狀爲口腹計, 放置文字, 已至十餘年, 仰負親意,</p>	<p>·及到十年之限, 奄成萬石君矣. (중략) 一日弘忽爾悲泣, 其兄怪而問之曰, “今則吾輩衣食, 不換三公矣, 有何不足事, 而如是疚懷也?” 答曰, “兄及弟, 既肄課工, 皆占小科, 已出身, 而願弟則泊於治產, 舊業荒蕪, 卽一愚蠢之人, 先親之所期望者, 於弟如矣, 豈不傷痛哉? 今則年既老大, 儒業無以更始, 不如投筆而</p>	<p>·及十年限滿, 擇布帛之精細者, 新製衣服, 又辦驪馬, 一送兩嫂家, 約日迎來. (중략) 一日, 弘忽悲泣, 伯也怪而問之, 對曰, “伯與季既專科工, 雖小科已掛名矣, 願弟則泊於營產, 舊業荒蕪, 便一蠢之人, 先親之嘗所期望者, 於弟如, 豈不傷痛? 今則年已強仕, 無以復尋鉛槧, 不如投筆業武.” 自其日習射, 未幾年,</p>

	<p>동패락송(연세대본)</p> <p>生計, 放置文字, 已十餘年, 一字不能記得, 仰負親意, 豈非可悲之甚者乎? 欲爲重修, 已無其望, 操弓成功, 亦或一道耶?”</p> <p>卽赴射場, 不計風雨, 刻意課射, 經三年登武科, 以其幹局器量, 世以名武稱之. (후략)</p>	<p>동패락송(천리대본)</p> <p>豈不甚悲者乎?” 卽赴射場, 課射三年, 登武科, 以其幹局器量, 世稱名武. (후략)</p>	<p>계시잡록·기문총화·계서야담·정구야담</p> <p>業武.” 自其日, 備弓矢習射, 數年之後, 登武科. 上京求仕, 得付內職, 轉以陞品, 得除安岳郡守. 定赴任之期, 而奄遭其妻喪. (후략)</p>	<p>동아취집</p> <p>登武科, 筮仕轉陞, 拜中和府使. 未赴任而遽喪耦. (후략)</p> <p>·外史氏曰, “史稱陳平之兄, 躬自治產, 縱平遊學, 遂成富貴, 許弘事, 何異於是哉? 第其赤手起家, 富埒陶朱, 兄弟同室, 樂極棣華, 非但才智之出衆, 可見誠力之到底, 甚奇哉!”</p>
--	--	---	---	---

이 일화는 『동패락송』의 연세대본과 천리대본, 그리고 『계서잡록』·『계서야담』·『기문총화』·『청구야담』·『동야회집』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중에서 『계서잡록』·『계서야담』·『기문총화』·『청구야담』은 약간의 글자 출입만 확인되며 거의 일치한다.<sup>16)</sup> 반면, 『동야회집』은 전체 일화의 구성은 같지만, 특정 부분을 부연 및 축약하거나 평을 부기한 측면에서 앞서 나열한 야담집과 구별된다. 즉 이 일화는 『동패락송』, 『계서잡록』계열, 『동야회집』으로 구분되는데, 원문을 제시하면 앞의 표와 같다.<sup>17)</sup>

먼저 이 일화의 주인공은 『동패락송』(연대본, 천리대본)에서는 許珙으로, 『계서잡록』계열과 『동야회집』에는 許弘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패락송』을 제외한 나머지 야담집에서는 부연 설명이 추가되면서 서사의 확장이 확인된다. ①에서는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기술되어 있고, ②에서는 길쌈, 정작, 담배와 같은 치부의 과정이 상세하며, ③에서는 허씨의 大科 권유와 후원이, ④에서는 기한이 되자 그동안 축적한 재산을 나눠 삼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 허씨가 武科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과에 급제한 후 벼슬에 부임하는 상황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계서잡록』계열과 『동야회집』은 『동패락송』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일화 구성은 같지만, 서사 전개의 과정에서 부연 설명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개하였다.

각각 야담집의 편찬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이 일화는 연세대본 『동패락송』-『계서잡록』-『기문총화』-『계서야담』-『청구야담』-『동야회집』으로 전승되며 변개된 것이다.<sup>18)</sup> 현재까지 확인된 텍스트로는 연세대본 『동패락송』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sup>19)</sup> 다만, 천리대본 『동패락송』은 『계서잡록』 이후 필사된 것

16) 일례로 『계서잡록』·『기문총화』·『계서야담』에는 ‘夫妻俱沒, 其三子晝宵號泣.’이 『청구야담』에서는 ‘夫妻俱沒, 其三子呼泣.’으로 되어 있다.

17) 이 글에서 거론된 일화의 원문에 대한 교감과 번역은 다음 저서들을 참고하였다.(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 보고사, 2021;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수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김명환·김동진, 『파수룩-옛 선비들의 심심 타파』, 문사철, 2014; 이강욱 옮김, 『청구야담』, 문학동네, 2019; 김동욱 옮김, 『국역 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2008.)

18) 각 야담집의 편찬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을 가장 최근에 정리한 정명기의 논의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정명기, 『야담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해석』, 보고사, 2020, 30~31쪽 참조.)

19) 『동패락송』은 당시 전대 문헌이나 流傳된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천예록』·『학산한언』·『삼교만록』에서는 『동패락송』과 유사한 일화가 다수 수록되어 있지만, 이

으로 추정되지만, 이 일화의 경우 주인공의 이름이나 서술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서잡록』보다는 연대세본 『동패락송』을 참고하여 필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천리대본은 연세대본을 기본적으로 傳寫하였고, 『동패락송』에 수록되지 않은 일화는 『계서잡록』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서잡록』계열에서는 글자간 출입만 확인되므로, 서로 간의 轉載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패락송』에 구현된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하면서도 표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묘사나 대화를 통해 서사성을 강화하는 면모가 확인된다. 이후 『동야회집』에서는 『계서잡록』계열의 일화를 다시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일화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야담집에서 전재, 혹은 후대로 전승되며 변개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야담의 특성상 허구와 사실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 일화처럼 후대로 갈수록 서사적 완성도를 중시했다는 점은 享有의식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sup>20)</sup> 향유의식에서 이야기로서의 흥미성이나 통속성 등과 같은 요인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동야회집』의 작가 李源命(1807~1887)은 서문에서 전대 야담집의 選取 기준을 명시하였다.<sup>21)</sup> 이 서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堪證古實]이다. 즉 이 일화를 수용 및 변개한 것은 흥미성만이 아닌 당대 실상을 곡진히 반영한 사실성도 주된 요인을 알 수가 있다.

科擧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이 일화는 조선후기 일부 양반층의 科擧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회경제

일화만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 明末에 편찬된 『今古奇觀』의 〈三孝廉〉과 등장인물 및 서사 전개가 유사하다. 노명흠이 『금고기관』을 열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18세기 이전에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간접적인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권기성, 「한·중〈허씨 삼형제 이야기〉의 관련 양상과 비교 연구」, 『우리文學研究』 51, 우리문화회, 2016, 85~86쪽 참조.

20) 3화 박진현의 일화 또한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이후 허구적 글쓰기 방식의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난 것으로 통속성의 강화와 보편적 가치 추구 경향으로 보기도 한다. 이승은, 「18세기 야담집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정출현·김준형, 앞의 논문, 298~299쪽 참조.

21) 李源命, 〈東野彙輯序〉(『정본 한국 야담전집』 8), “余於長夏調荷, 偶閱於野譚奇聞叢話, 頗多開眼處, 惟是記性衰耗, 無以領略萬一. 遂就兩書, 撮其篇鉅話長, 堪證古實者, 旁及他書之可資該洽者, 并修潤載錄. 又采閭巷古談之流傳者, 綴文以間之. 每篇之首, 題句標識, 概依小說之規, 各段之下, 輒附論斷, 略倣史傳之例.”

구조의 요동으로 토지 소유 형태 및 경작 분위기에 변화가 확인된다.<sup>22)</sup> 이 일화에서도 許珙의 토지 매입이나 경작을 통한 致富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兩亂 이후 黨爭과 士禍 등으로 인해 출세의 관문이 좁아지면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몰락양반 계층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에게 빈곤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면서 科擧를 통한 출세라는 명분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게 이른다. 이 일화에서도 허씨의 삼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빈곤으로 인해 各自圖生하는 과정에서 科擧를 포기하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조선후기 몰락양반층의 현실 대응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야담에서 몰락양반의 처세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양반의 지조를 지키려는 경우, 체면을 버리고 致富를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경우, 群盜에 가담하여 사회구조에서 일탈하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23)</sup> 그런데 이 일화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한 상실한 허씨 삼 형제 모두 科擧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한때 科擧를 포기했던 둘째 허공도 경제적 기반을 이룩하자 武科이지만 科擧에 응시하게 된다. 즉 현실 대응에 있어 致富는 일시적인 일탈 행위에 머물고 있기에, 양반층의 전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동야취집』의 〈才子落鄉富抵京〉에서 崔生의 경우 계속된 낙방에 양반이라는 체면을 버리는 경우와는 다르다. 또한 허공의 욕망은 致富를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致富 이후 애초 욕망이 科擧를 통한 출세에 있음을 성찰하게 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雜記古談』의 〈盜宰相〉에서 科擧를 통한 출세를 부귀영화로 인식하며 致富와 동일시하는 면모와는 다르다.<sup>24)</sup> 더욱이 致富 이후 갈등을 통해 허공의 科擧에 대한 욕망의 절실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여타 야담집과의 상이점이다.

아울러 ④에 등장하는 “吾父母之所期吾兄弟者, 在科而不在產.”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科擧를 통한 출세는 아버지의 遺志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좌절된 욕망은 아들인 허공에게 대물림되면서 출세욕은 개인 차원이 아닌 가문의 차원으로 심화된다. 조선시대 양반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양반 가문으로서 인정받을

22) 이우성·임형택 역편, 앞의 책, 12쪽.

23) 손찬식, 앞의 논문, 108쪽; 김동석, 『紀文叢話』 이야기와 朝鮮後期 沒落兩班層의 向方, 『야담 문학연구의 현단계』 3, 보고서, 2001.

24) 任邁, 〈盜宰相〉, 『雜記古談』, “我之勤苦讀書, 將以求科甲, 圖富貴與妻子共享也.”



수 있었다. 물론 빈곤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유언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양반 가문으로서 사회적 지위의 회복에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일화에서처럼 빈곤함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경에서도 科擧를 통한 출세는 富보다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화를 통해 조선후기 몰락양반층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의 치열했던 갈등과 대응의식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균열된 시선에서 발생한 갈등에는 科擧가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일화에서 致富는 세밀한 계획과 처절한 노력으로 성취해 나아가는 장면을 세밀히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변화된 사회상이 곡진하게 반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삼 형제의 각기 다른 현실 대응에서 科擧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 시기 몰락양반층의 현실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다. 즉 양반으로서 致富는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는 것으로 출세와 상충되는 행위이다. 이 일화의 허씨 또한 동일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致富를 이루자 다시 출세하였고, 이는 아버지의 유언임을 토로하는 서술을 통해 출세에 대한 욕망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致富는 몰락양반의 당대 새로운 가치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이 일화에서 致富는 오히려 출세에 대한 욕망을 농후하게 투영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일화의 서사 전개와 갈등의 주요 원인이 科擧에서 비롯되었고, 후대 여러 야담집에서 서사의 확장을 위한 전제와 변개는 科擧에서 비롯된 갈등을 심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일화의 전제와 변개의 과정을 통해 조선후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일부 양반층의 가치관 변화에서 변하지 않은 가치관의 기저에 해당하는 科擧를 통해 여전히 공고한 科擧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 3.2 成宗의 일화 : 穩妥한 科擧의 憧憬과 返照

천리대본 『동패락송』 30화는 成宗이 잠행하다가 우연히 늙은 선비를 만나 그의 글재주를 확인하고 이후 別科를 設行하지만, 운명에 의해 급제하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종이 잠행하다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집으로 들어감
- ② 늙은 선비와 응대해 보니 글재주가 있어 別科를 알려줌

- ③ 쌀과 고기를 주고 別科를 명하여 선비 집에서 본 글로 출제
- ④ 장원한 답안은 늙은 선비가 아니라 어떤 소년임
- ⑤ 하사한 음식을 먹고 체해 늙은 선비의 제자가 대신 응시함
- ⑥ 늙은 선비의 급제하지 못한 것을 운명으로 여김

이 일화는 『파수록』·『계서잡록』·『계서야담』·『기문총화』·『청구야담』·『동야휘집』에서 확인된다. 이들 중에서 『계서잡록』·『계서야담』·『기문총화』·『청구야담』은 글자간 출입이 확인될 뿐 거의 일치한다. 반면, 『동야휘집』은 전체 일화의 구성은 같지만, 특정 부분을 부연 및 축약한 측면에서 이들과 구별되므로, 대체적인 양상은 전술한 22화와 같다. 다만 『파수록』의 경우, 『동패락송』보다는 서술이 자세하고 『계서잡록』·『기문총화』·『청구야담』·『계서야담』과 비슷하면서도 특정 부분이 축약되어 있다.<sup>25)</sup> 그러므로 이 일화는 『동패락송』, 『파수록』, 『계서잡록』계열, 『동야휘집』으로 구분되는데, 원문을 제시하면 147~148쪽의 표와 같다.

이들의 차이점을 보자면 ①에서는 『파수록』, 『계서잡록』계열, 『동야휘집』 이들 간의 서술은 『동야휘집』에서 ‘微服而行’이 빠진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치한다. 다만 『동패락송』은 이들보다 축약된 형태이다. ②는 늙은 선비와 성종의 문답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문답은 총 4번인데, 『파수록』에만 성종의 답변이 생략되어 있어 여타 야담집과 구별된다. 또한 『계서잡록』계열과 『동야휘집』의 서술은 거의 비슷한데, 『계서잡록』계열 중에서도 『계서잡록』만 ‘暗記’가 ‘暗視’로 되어 있고 『동야휘집』에서는 ‘熟視’로 되어 있다. ③에서도 ①에서의 양상과 유사하다. 다만 『파수록』의 ‘上憐而形勢’과 같은 서술은 미세한 변개로 여타 야담집과 차이를 보인다. ④에서도 거론된 야담집은 모두 『동패락송』보다 서술이 자세한데, 무엇보다 시험으로 제출된 문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동패락송』에서는 문체가 없는데 반해, 『파수록』과 『계서잡록』·『기문총화』·『청구야담』, 그리고 『동야휘집』에서는 모두 ‘賦’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계서잡

25) 연칭소장본 『罷睡錄』(TK5568.5-6168)은 『罷睡錄』이라는 제명으로 현전하는 국증본, 규장각본, 서울대본, 함북본과 내용이 다른 것이다. 연칭본은 총 83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찬자 및 편찬 시기가 불분명하다. 정용수, 『破睡錄 研究: 편찬연대, 편찬자, 이본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화회, 1995, 270쪽. 『파수록』 원문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패각송 (친리대본)	파수록	계서집록·기문총화· 계서야담·청구야담	동야취집
①	<p>成廟乘雪月夜微行，到南山下，開斗屋有讀書聲。上以幅巾道服，開戶而入。</p>	<p>成廟時或微行，一夜雪月照耀，上與數三宦侍，微服而行，行到南山下。時政三更後，萬籟俱寂，而山下數間斗屋，燈火明滅，有讀書聲。上以幅巾道服，開戶而入。</p>	<p>成廟時或微行，一夜雪月照耀，上與數三宦侍，微服而行，行到南山下。時政三更後，萬籟俱寂，而山下數間斗屋，燈火明滅，有讀書聲。上以幅巾道袍，開戶而入。</p>	<p>成廟嘗或作康衢之游，一夜雪月照耀，上與數三宦侍，行到北山下。時政三更，萬籟俱寂，山底數間斗屋，燈火明滅，有讀書聲。上開戶而入</p>
②	<p>主人驚起問曰，“何許客子，深夜到此？”上曰，“偶然過去，聞書聲而來，仍問所讀書？”曰，“易經也。”上與之問難，問答，應對如流，問年紀則曰，“五十餘。”以數奇之，致屈科場矣。請見私草後，上曰，“如許實才，尙未科就，此有司之責也。”對曰，“奇窮之致，何怨有司乎？”上曰，“再明有別科，或聞之否？”對曰，“未得聞之，何時出乎？”上曰，“俄已有令，第爲努力見之。”</p>	<p>主人驚起，延坐而問曰，“何許客子深夜到此？”上對曰，“偶然過去，聞讀書聲而來。”仍問曰，“所讀何書？”曰，“易經也。”上與之問難，應對如流，真大儒也。問年紀幾何，曰，“五十餘矣。”“不廢科工乎？”曰，“數奇之故，屢屈科場矣。請見其私草，尙見其私草，乃出示，則箇箇名作也。上怪而問曰，“如許實才，尙未決科，此則有司之責也。”對曰，“奇窮之致，何可願登科乎？”</p>	<p>主人驚起，延坐而問曰，“何許客子深夜到此？”上對曰，“偶然過去，聞讀書聲而來。”仍問曰，“所讀何書？”曰，“易經也。”上與之問難，應對如流，真大儒也。問年紀幾何，曰，“五十餘矣。”“不廢科工乎？”曰，“數奇之故，屢屈科場矣。請見其私草，乃出示，則箇箇名作也。上怪而問曰，“如許實才，尙未決科，此則有司之責也。”對曰，“奇窮之致，何可怨有司之責乎？”上曰，“再明有別科，其或聞之否？”對曰，“不得聞之，何時出合乎？”上曰，“俄者自上命，第爲努力見之。”</p>	<p>主人驚起延坐曰，“何許客深夜到此？”上曰，“偶然過去，聞書聲而來。”仍問曰，“所讀何書？”對曰，“易經也。”上與之問難，應對如流，真巨儒也。問，“年紀幾何？”曰，“五十餘歲。”“不廢科工乎？”曰，“只緣數奇，屢屈科場矣。請見其私草，乃出示之，箇箇名作，上怪而問之，曰，“如許實才尙未科，此則有司之責也。”對曰，“奇窮之致，何何怨有司之不公乎？”上熟視其中一篇題與所作，因問曰，“再明有別科，其或聞之否？”對曰，“不得聞之，何時出合乎？”上曰，“俄者自上命，第爲努力見之。”</p>

	동택승 (친리대본)	파수록	계서집록·기문종화· 계서야담·청구야담	동야휘집
③	仍辭出，使掖譚饋二斛米十斤肉，還宮後，仍命別科，御題以其私草中題出矣。	上憐而形勢，使譚吏白米一石與十斤肉，自外投之而去。還宮後，仍命設別科，及期御題，以向夜儒生私草中題出揭。	仍辭出，使譚以二斛十斤肉，自外投之而去。還宮後，仍命設別科。及期御題，以向夜儒生私草中題出揭。	仍辭出。明日，使掖款，以二斛米十斤肉，自外投之，命設別科，及期御題，以向夜儒生私草中題出揭。
④	及其呈券，果當日所饋也。擢置第一，呼新恩則非向夜之儒，卽一少年也。	而只待其文之入來，未幾試入呈，果是向夜所覽之賦。大加稱賞，多下御批，而擢置第一矣。及其拆榜之時，呼入新恩，則非向夜所見之儒，卽一少年儒也。	而只待其文之入來，未幾試入呈，果是向夜所覽之賦也。自上大加稱賞，多下御批，而擢置第一矣。及其拆榜之時，呼入新恩，則非向夜所見之儒，卽一少年儒也。	而只待其文之入來。未幾，試券入呈，果是向夜所覽之賦，上大加稱賞，特擢第一。及其榜出，呼入新恩，則非向夜所見之儒，卽一少年也。
⑤	上訝然問曰，“此所做乎？”對曰，“果於臣之老師私草中書呈矣。”上曰，“汝師何不赴舉？”對曰，“偶飽米肉，猝患闕格，不得入來矣。”上默然良久，使之退出，蓋賜米肉，過飽飢腸而生病也。	上訝然而教曰，“此是汝之所做乎？”對曰，“非也。果逢於小臣老師私草中而書呈矣。”上又教曰，“汝師何不赴舉？”對曰，“臣之師，偶飽米肉，猝患闕格，而不得入來，故小臣懷其私草而來矣。”上默然良久，使之退。蓋所賜米肉，過飽於飢腸而生病也。	上訝然而教曰，“此是汝之所做乎？”對曰，“非也。果逢於小臣老師私草中而書呈矣。”上又教曰，“汝師何不赴舉？”對曰，“偶飽米肉，猝患闕格，而不得入來，故小臣懷其私草而來矣。”上默然良久，使之退。蓋所賜米肉，過飽於飢腸而生病也。	上訝而教曰，“此是汝之所做乎？”對曰，“非也。果逢於老師私草中而書呈。”又教曰，“汝師何不赴舉？”對曰，“偶飽米肉，猝患闕格，不得入來，故小臣懷其私草而來矣。”上默然良久，使之退，蓋所賜米肉，過飽於飢腸而生病也。
⑥	是豈非命耶？其儒仍不起云耳。	由是觀之，豈非命耶？此儒，因此病不能起云矣。	由是觀之，豈非命耶？此儒生，仍此病不起云矣。	由此觀之，豈非命耶？

록』계열에서는 『계서야담』만 ‘句’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⑤에서는 ‘非也’라는 구절만 빼고 모두 일치한다. ⑥에서도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표현 측면에서 보자면 야담집마다 모두 다르다. 특히 『계서잡록』계열에서는 『계서야담』만이 ‘人之一飲一啄, 皆係天定, 此儒終始塞屯云爾.’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았을 때, 『계서잡록』계열은 서로 간의 전재 가능성이 확인되는데, 이들 또한 각각 서술에서 의도적인 추가 및 축약, 그리고 구절의 미세한 변화 등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본다면 각자 일정한 편찬 의식을 가지고 수용 및 변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서잡록』계열에서 『계서야담』만이 표현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가장 특이점은 『파수록』이다. 전체 일화 구성에서 『계서잡록』계열과 유사하다. 특히 성종의 일화는 『계서잡록』에서 2-1, 2-2, 2-3화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는데, 『기문총화』(184, 185, 186), 『계서야담』(99, 100, 101), 『파수록』(1, 2, 3)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천리대본 『동패락송』에서는 한 일화가 빠진 30, 31화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고 『청구야담』에서는 211화 1개만 수록되어 있으며, 『동야회집』에서는 『계서잡록』의 2-1과 2-2가 합본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연침본 『파수록』은 현재까지 편찬자 및 편찬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이들 간의 선후 영향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파수록』이 『청구야담』을 제외한 『계서잡록』계열과 일정한 영향 관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다만 이 일화는 원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는 당시 流傳된 이야기가 『계서잡록』에서 처음 문면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거론된 야담집 모두는 『계서잡록』을 수용하여 변개한 것은 물론 천리대본 『동패락송』도 연세대 『계서잡록』 권2와 차례가 일치한 점에서 전재 및 변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천리대본 30화는 전술한 22화와 같이 조선후기 과거담의 전승 과정에서 부연 설명과 서사성 강화되는 경향성에서 벗어나 있다. 오히려 축약된 양상인데, 천리대본의 모든 일화가 전대의 이야기를 축약한 형태로 수록한 다이제스트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科擧談 측면에서 이 일화가 전승과 수용, 전재와 변개된 이유를 살펴보자. 과거담에서 국왕이 일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왕은 성종이다.<sup>26)</sup> 성종은 『經國大典』을 편찬하면서

26) 과거담에서 일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국왕은 주로 세종과 성종인데, 이 중 성종의 사례가

科擧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완성하였으며, 『東文選』·『東國輿地勝覽』·『東國通鑑』, 그 외 다수의 서적을 편찬하였다.<sup>27)</sup> 또한 지방의 사림파를 정치에 참여하게 하여 인재 등용에 한계를 두지 않았기에 宣祖 연간에 이르러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sup>28)</sup> 이처럼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국왕인 만큼, 그의 긍정적인 형상은 민담과 설화뿐만 아니라 야담과 소설에서도 다수 확인된다.<sup>29)</sup>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이 성종의 잠행 이야기이다.

이 일화 또한 배경 설정이 동일하다. 무엇보다 국왕으로서 폭넓은 인재 등용과 선발제도에 관한 운영실태를 확인하려는 면모가 담겨 있는데, 이는 科擧와 직결되어 있다. 이 일화에서 성종이 늙은 선비를 위해 別科를 설행하였고 늙은 선비가 작성한 글을 試題로 내건 것은 그를 등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울러 ‘有司之責’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과거제도의 책임자로서 담당자들의 실태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늙은 선비의 낙방은 실력이 아닌 試官의 잘못이므로 성종은 그를 위해 別科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별과는 外方에서 직부전시 자격을 주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국왕의 명령으로 갑자기 설행되었으므로 비정적인 시험인 別試에 해당한다. 별시는 조선후기에는 증광시와 정시로 대체되면서 비중이 떨어졌지만, 초기의 대표적인 慶科였다.<sup>30)</sup> 『성종실록』에 의하면 성균관 유생이나 종친을 권면하기 위해 별시가 자주 시행되었다.<sup>31)</sup> 별시는 시험 방법과 과목

압도적 많이 확인된다. 전술했던 야담집 이외에도 『晚悟漫筆』에서는 성종과 관련된 일화가 8편이며, 이외에 『東稗』·『夢遊野談』·『錦溪筆談』·『靑野談數』 등에서도 확인된다. 국왕과 관련된 과거담은 추후 지면을 달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7) 이 같은 내용은 『慵齋叢話』에도 전한다.

28) 李瀾, 〈成廟養才〉, 『星湖僿說』 권16, “成廟世, 輒以材器, 獎拔姑擧數事. 丘從直以鄉曲微賤, 偶值微行. 問業則春秋也, 閱試而奇之, 直拜校理. 臺閣論之, 上召諸臺員, 令講誦春秋, 皆不能. 又引從直試之, 令諸臺觀之曰, “爾之不能而能者, 反不得此職耶?” (中略) 其立賢, 無方如此. 於是, 爭自濯磨, 時風一變, 至宣廟世, 彬彬著效于斯時也.”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참조.

29) 설화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http://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 1930년 덕흥서림에서 간행한 구할자본 고전소설인 「성종대왕실기(成宗大王實記)」이 현전한다. 이 작품 표지에 잠행하고 있는 성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잠행에 대한 일화가 ⑭, ⑮, ⑯, ㉔에서 확인되는데, ⑮화가 이 장에서 거론된 일화와 같다. 이기대, 「〈성종대왕실기(成宗大王實記)〉의 소재원(素材原)과 성종(成宗)의 형상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99, 국어국문학회, 2022, 9~15쪽 참조.

30)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 2014, 105쪽.

31) 『성종실록』 22년 3월 15일; 23년 11월 24일 기사. 특히 3월 15일 기사에서는 별시를 자주 설행하고자 했던 성종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이 확인된다. 榜目에 의하면 성종 때에는 9번 별시

및 선발 인원이 유동적이었는데 조선후기 『속대전』에 이르러서야 명문화되었다. 별시의 시험과목은 製述과 會講이며, 제술은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 중에 1편으로 하였다.<sup>32)</sup> 제술 문체는 『동패락송』에서 누락되어 있고, 『계서야담』을 제외한 나머지 야담집에는 모두 賦로 하였는데, 당대 과거시험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성종이 늙은 선비의 집에 찾아가는 이유는 『周易』을 읽는 소리 때문이었다. 늙은 선비의 경서 강독은 양반층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성종 연간의 변화된 과거시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성종 연간에 士林의 주장으로 講經이 중시되어 강경만으로 인재를 뽑기도 하였는데 이후 별시에서는 초시와 전시로 시험 과정이 세분화되었다.<sup>33)</sup> 그러므로 이 일화는 당대 科擧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세밀하게 반영되어 사실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더욱 있음직한 일화로 구성하기 위한 편찬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 일화가 후대로 전승되면서 유통 및 향유된 이유는 야담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운명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늙은 선비는 성종이 하사한 쌀밥과 고기를 먹고 체해 급제하지 못했고 이를 운명이라 서술하면서 일화가 마무리된다. 성종의 등장으로 인해 늙은 선비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 기회는 운명 앞에서 좌절된다. 이를 바라보는 성종의 시선과 이 일화를 수용한 각각의 편찬자들은 늙은 선비의 힘과 의지로는 난국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어쩔 수 없다’라는 운명으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과거제도의 책임자인 성종이라도 운명은 바꿀 수 없었다. 야담에서 운명은 사람의 처지를 지속되거나 변화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데, 이 일화에서 운명은 불운한 타자에 대한 연민으로 작동한 것이다.<sup>34)</sup>

科擧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일화가 후대로 전승되며 전제 및 변개가 이루어진 중심에는 성종이 있다. 그는 과거제도 온전함의 표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에는 科擧의 기본 목적인 인재 선발의 공정성이 일부 무너지면서 폐단을

가 설정되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32) 원창애 외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95쪽.

33) 처음 별시는 제술로만 당락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별시가 자주 설행되면서 유생들은 강경을 소홀히 하게 되자 별시에 초시를 두고 초시에 강경을 시험하자는 논의가 성종 대부터 시작되었다. 명종 대에 이르러 별시에서 강경이 정례화되고 초시와 전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다. 『성종실록』 10년 11월 12일 기사.

34) 이강옥, 앞의 책, 336~345쪽 참조.

불러일으켰다. 과거담에서 성종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의 현실에 대한 반감으로써 科擧가 온전했던 시대를 憧憬하는 방식이자 科擧의 본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返照라 할 수 있다. 科擧라는 제도를 법제화한 국왕으로서 폭넓은 인재 등용을 실행했던 科擧의 책임자로서의 성종이 과거담에 자주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후대로 전승되면서 전제 및 변개가 이루어진 이유에는 인재 등용을 온전히 실행했던 그의 모습에서 科擧의 본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성종에 대한 긍정적인 형상의 수위는 당대 科擧에 대한 불만과 개탄의 크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화가 후대로 전승되며 전제와 변개가 이루어진 것은 야담에서의 운명론과 같은 정형성이 작동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종의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별시나 부와 같은 세밀한 배경 설정을 통해 흥미성을 유발하려는 편찬자들의 의식에는 온전한 科擧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 4. 나가며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에는 응시과정, 부정행위, 답안작성 등과 같은 구체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科擧가 지닌 파급력을 서사의 발단이나 전개, 그리고 科擧와 관련된 시대적 분위기를 일화에 세밀하게 배치하였다. 이러한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은 후대 여러 야담집으로 전승되며, 전승 과정에서 동시대 및 비슷한 시기의 야담집 사이에서 轉載가 이루어지고 나름의 편찬자의 기준에 따라 變改되었다. 즉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을 수용한 후대 야담집에서 서사의 확장을 위한 전제와 변개는 科擧와 관련된 당대 현실이나 욕망을 촘촘히 배열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천리대본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은 조선후기 야담의 전개과정에서 돌출된 면모가 확인되었다. 천리대본은 전대 여러 야담집을 수용하였기에 그 내용에서는 다양성이 확인되지만, 부연 설명이나 서사 전개에서 축약된 방식으로 전제 및 변개하였기에, 여러 야담집의 傳寫 대상으로 자리하지는 못했다. 또한 천리대본 『동패락송』은 연세대본 『동패락송』과 연세대본 『계서잡록』을 대상으



로 전사하였고, 연세대본 『동패락송』에 수록되지 않은 일화의 경우 연세대본 『계서잡록』을 참고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선후기 야담집에서 소재원으로서 연세대본 『동패락송』이 지닌 가치뿐만 아니라<sup>35)</sup>, 천리대본 『동패락송』을 통해 조선후기 야담 모두가 서사의 확장으로만 전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科擧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패락송』 소재 과거담을 통해 조선후기를 관통하는 科擧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었다. 즉 조선후기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서 주요 갈등의 요인이 科擧였다는 점을 통해 여전히 유효한 科擧의 파급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과거담에서 조선후기 科擧에 대한 불만은 科擧가 온전했던 시대를 소환하고 동경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물론, 각각의 시기나 개인에 따른 科擧에 대한 시선은 다르다. 더욱이 이 글에서 언급한 과거담의 양상과 특징은 『동패락송』이라는 특정 야담집에 국한된 면모이므로, 조선후기 科擧에 대한 인식의 전모는 아니다. 그럼에도 전재와 변개 양상을 통해 科擧에 대한 공통된 시선이나 욕망의 일단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35) 물론 『동패락송』의 과거담이 후대 야담집에 전승되어 전재 및 변개가 이루어진 것은 『계서잡록』의 역할이 크다. 『계서잡록』의 영향을 받은 『기문총화』와 『계서야담』이 『동아휘집』과 같은 후대 야담집으로 전재되면서 결과적으로 『동패락송』 소재 일화가 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임완혁, 「『東裨洛誦』 關聯 資料의 檢討」, 『한문학보』 1, 우리한문학회, 1999, 300쪽.

## 참고문헌

### 1. 기본 연구 자료

-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김동욱 옮김, 『국역 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2008.  
김명환·김동진, 『파수록-옛 선비들의 심심타파』, 문사철, 2014.  
이강욱 옮김, 『청구야담』, 문학동네, 2019.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수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 보고서, 2021.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 센터(<http://kostma.korea.ac.kr/>)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http://www.nl.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index.do>)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2. 저서 및 논문

- 이강욱,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원창애 외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이우성 임형택 역편, 『이조후기 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73.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 2014.  
정명기, 『야담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해석』, 보고서, 2020, 30~31쪽.  
권기성, 「한·중〈허씨 삼형제 이야기〉의 관련 양상과 비교 연구」, 『우리文學研究』 51, 우리문화회, 2016, 85~86쪽.  
김동욱, 「동패락송에 대하여」,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13~14쪽.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서, 2001, 304~305쪽.  
남궁윤, 「『청구야담』의 轉載과정과 編制양상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손찬식, 「漢文短篇에 나타난 沒落 兩班의 刑象」, 『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연

구회, 1996, 108쪽.

이기대, 「〈성종대왕실기(成宗大王實記)〉의 소재원(素材原)과 성종(成宗)의 형상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99, 국어국문학회, 2022, 5~44쪽.

이신성, 「〈一朵紅 이야기〉의 展開樣相과 그 意味」,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사, 2001, 319~359쪽.

이채경, 「18세기 야담의 유사 화소 교착 및 변개 양상」, 『대동한문학』 40, 대동한문학회, 2014, 405쪽.

UCI : G704-001498.2014.40.40.009

임완혁, 「『東稗洛誦』 關聯 資料의 檢討」, 『한문학보』 1, 우리한문학회, 1999, 300쪽.

임형택, 「『東稗洛誦』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23, 한국한문학회, 1999, 322~324쪽.

정명기, 「『동패락송』 연구」,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사, 1996, 328~329쪽.

정용수, 「破睡錄 研究: 편찬연대, 편찬자, 이본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270쪽.

정출현·김준형, 「『東稗洛誦』의 전대 이야기 수용 양상-전대 문헌 소재 「朴震憲」과 「楊士彦 모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7, 동양한문학회, 2020, 288~289쪽.

| Abstract |

## Reprints and Modifications of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Dongpaeraksong(東稗洛誦)』

Kim, Kyung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alities and its cultural background of the state examination through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Dongpaeraksong』, and to investigate the circulation and enjoyment of related anecdotes through the reprints and modifications of state examination stories.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Dongpaeraksong』 amount to eleven pieces, each meticulously depicting the influence of the state examination. For this reason, most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Dongpaeraksong』 are highly fictional, yet they are also reality-oriented. Additionally, ten of the stories were transmitted to the later generations. In the later collections of Yadam(野談) that adopted these stories, contemporary realities and desires related to the state examination were arranged elaborately by reprints and modifications and factuality was reinforced through detailed descriptions.

Through these characteristics, it is identified that the state examination was a major source of conflict during the formation of new valu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onfirming its still effective influence. Moreover,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featuring fatalism contained the desires of those drifting away from achieving fame and prestige. This fatalism was an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with the crumbling reality of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 way of longing for the era when the examination system was still intact.

**Key words** : State Examination, Yadam(野談), State Examination Stories, Dongpaeraksong(東稗洛誦), Reprints, Modifications, Culture of the State Examination

투고일 : 2024년 7월 7일 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13일 게재확정일 : 8월 17일